

# 협력사는 기업경쟁력의 뿌리… ‘상생 생태계’가 해답

**실패의 경제**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지대축구)

## 〈14〉 대기업 갑질에 멍드는 하청업체

대기업 임직원 11명 ‘지위 이용’ 4년간 하청업체서 6억 상당 받아 거부팬 트집 잡고 공사대금 안줘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있으면 그 아래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생을 위한 협력 관계 사이에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새로운 규제·법률을 만들고 행정력으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

작년 6월 취임 직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CEO)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뉴스

그렇지만 이후에도 대기업 갑질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부분은 심각하다. 기업 대기업이 아니라 표면화되며 어렵고 문제를 생겨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조용히 묻히기 쉽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국내 4위 건설회사 D가 하청업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현직 임직원들이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도 하고, 딸 대학 입학 선물로 외제 승용차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보도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D사 임직원 11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4년간 총 6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는 심지어 새벽에 자다가도 불려가 계산을 해준 적도 있다면서 돈을 안주면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레미콘도 안대주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이런 갑질에 공사대금도 받지 못해 폐업 직전까지 몰렸다. 이와 관련해 3월 22일 D사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연이어 나온 (불미스러운) 이슈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건설업계만이 아니다. 5년 전 H중공업 간부와 직원 25명이 11년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나타났다. 또한 그 몇년 전에는 한 전 직원도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청업체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 2월 현금 자동화기기(ATM)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협력업체가 만든 기기 모터의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주고 납품단가를 낮춘 사건도 발생했다.

대표와 생산과장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협력업체 측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비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표면에 드

러난 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개별 직원의 갑질을 감수해야 거래를 유지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한 직장정보사이트의 기업 리뷰에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하청직원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잡플래닛 기업 리뷰에는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하면 거의 전직원이 퇴근 없는 근무 모드에 들어가거나, 시설 유니폼 입고 직원 식당에서 밥도 못먹게 하고 담배도 못피게 한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한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불쌍할 정도로 갑질을 하는 편이며 자기 부모 농약 치는 데 협력업체 직원이 농약 사들고 가는 것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갑질을 보다못해 한 대기업 직원은 “대기업에서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하청업체 데리고 가서 갑질 솔선수범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해당 계시물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삼성·애플 이끌던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산 돌풍

# ‘가성비’ 내세운 샤오미, 韓시장 성공할까

中화웨이, 2분기 글로벌 점유율 12% 점유율 11.4% 애플 제치고 2위 차지 中 3사폰 합산 점유율 한국폰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해 온 스마트폰 시장 구도가 변화를 맞고 있다. 저렴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던 중국 스마트폰이 글로벌 점유율을 크게 늘리며 성장하면서 국내시장에도 진출했다. 그동안 외국산 휴대폰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시장에서도 중국 스마트폰이 의미있는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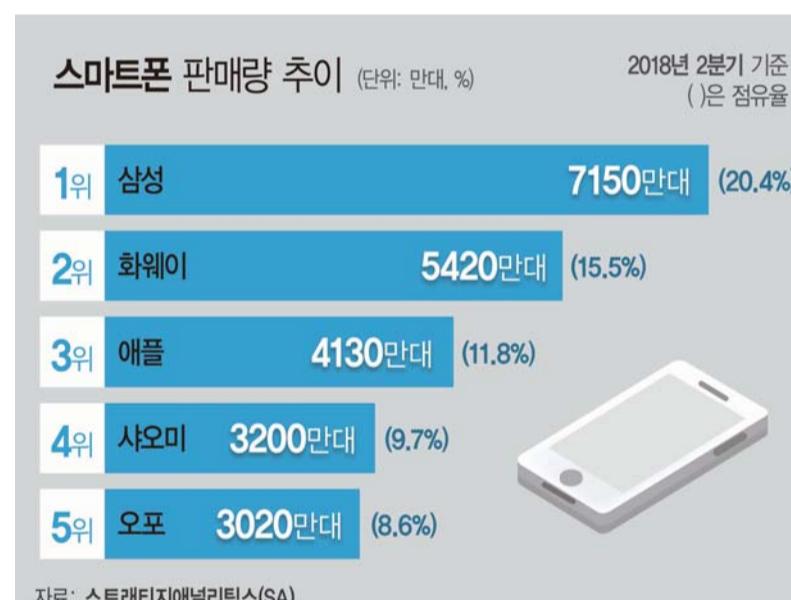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D램의스체 인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2분기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12.0%로 2위인 11.4%의 애플을 제쳤다고 전했다. 1위는 20.4%의 삼성이다.

판매대수 점유율이긴 하지만 중국업체의 성장은 위협적이다. 2011년 처음 스마트폰을 생산한 화웨이는 6년만에 점유율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화웨이·오포·샤오미 중국폰 3사의 합산점유율은 작년에 한국폰을 넘어섰다.

한 때 삼성이 1위까지 차지했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폰은 존재감조차 없다. 삼성은 점유율이 1%대이다. 삼성은 작년 4분기 인도 시장에서도 샤오미에 선두를 빼앗겼다. 올 2분기에는 러시아 시장도 화웨이에게 주월을 허용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조 3000억 원(잠정치)으로 전 분기보다 38% 감소했다. LG전자는 영업손실 1400억 원으로 13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삼성의 부진은 갤럭시S9 판매량이 저조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갤럭시S9는 연간 판매량 예상치가 4000만 대에서 2800만 대로 수정됐다. LG G7 씽큐도 매출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 정체 국내 스마트폰 업체의 부진은 무섭게 치고



가셨으면서도 출고가는 저가폰 수준인 29만9000원이다. 동급 국산폰보다 20만~30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전국 아이나비 서비스센터와 AS계약을 체결해 중국폰은 사후관리가 나쁘다는 인식도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 샤오미는 시장점유율 5%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서 화웨이도 8월 중에 노바라이트2를 자급제폰으로 출시할 예정으로 최근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이 제품 역시 중저가폰 수준 성능에 20만 원대 출고가 설정이 예상된다.

중국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엉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사용자의 호응을 얻은 만큼 한국시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프리미엄 모델과 중저가 모델의 성능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에 민감해진 상당수 국내 사용자가 중국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영향력이 강한데 주요 이통사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가격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중국 스마트폰이 제한적 판매대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도 있다.

## “경제능력 고려땐 조세부담률 22% 돼야”

韓, 18.5%… OECD 평균은 25% 올해 20% 넘어도 최하위권 수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이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6.5%포인트 낮은 18.5%였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돌파하더라도 3년 전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덴마크가 45.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스웨덴이 33.6%로 뒤를 이었고, 아이슬란드 33.1%, 뉴질랜드 33.0%, 핀란드 31.2%, 벨기에 30.5%, 이탈리아 30.3%,

오스트리아 29.0%, 프랑스 28.5%, 호주 28.2%로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확대 기조나 한국의 경제 여건에 비춰 보면 조세부담률을 20%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개인적으로는 22%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세자 가운데 조세 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계층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복 조세재정 융합연구실장이 지난달 ‘중장기조세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재정패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천394명 중 약 40%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 를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http://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